

감정 정치의 전략적 구조화: SER-M 모델을 통한 트럼프 2016년 대선 사례 분석

조선겸¹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 1. 감정 정치 이론 2. 정치적 효능감 이론 3.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4. SER-M 모델 III. Rust Belt의 구조적 변화와 통계분석방법 1. Rust Belt의 구조적 위기 2. 주체의 전략적 구성 3. 감정 어휘의 전략적 자원화 4. 메커니즘의 작동 5. 사례 지역과 전략 간의 인과적 연결 IV. SER-M 실행 흐름 분석 1. 실행 흐름 개념의 이론적 정당화 2. 실행 흐름의 단계별 구조 3. 실행 흐름의 순환성과 강화 메커니즘 4. 실행 흐름의 일반화 가능성과 비교 분석의 확장성 V. 감정 어휘 분석 1. 감정 어휘의 이론적 위상	2. 감정 어휘의 유형론 3. 감정 어휘의 반복 4. 감정 어휘 분석의 방법론 감정 어휘와 정치적 효능감의 연결 VI. 전략 효과 분석 1. 전략 효과의 정의 및 구조적 조건 2. 감정 어휘의 반복과 인지적 재구조화 3. 전략 효과의 실증적 지표 4. SER-M 모델을 통한 전략 효과의 실행 흐름 5. 전략 효과의 한계와 조건 VII. 논의 및 함의 1. 감정 정치의 전략적 구조화 2. SER-M 모델의 분석적 기여 3. 전략 효과의 조건성과 맥락성 4. 감정 정치의 윤리적 함의 5. 향후 연구 방향 VIII.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본 논문은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의 전략적 작동 원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ER-M(Subject-Environment-Resource-Mechanism) 모델을 적용하였다.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미국 대선 캠페인을 선정하였으며 감정 어휘의 반복, 정체성 구성, 정치적 효능감의 회복, 그리고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 흐름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감정 어휘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유권자의 인식과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과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감정 어휘는 반복과 확산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효능감 회복을 매개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SER-M 모델은 감정 정치, 정치적 효능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정치 전략이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구조적 실행 흐름을 통해 형성되고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감정 정치의 구조적 이해를 심화하고 정치 전략 분석의 이론적·방법론적 확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감정 정치가 단순한 선동이나 감정적 자극이 아닌 전략적으로 구성된 실행 흐름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창출하는 문화적·구조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감정 정치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또한 함께 제기하며 향후 다양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의 비교 연구와 모델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감정 정치, 감정 어휘, 정치적 효능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SER-M 모델, 트럼프, 2016년 미국 대선, 실행 흐름, 정체성 구성, 전략 효과

I. 서론

21세기 정치 환경은 전례 없는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 전략의

¹ 엘스비어(Elsevier B.V.) j.cho.1@elsevier.com

설계와 실행 방식 또한 급격한 전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수단의 진보나 메시지 전달 방식의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주체와 환경, 자원, 실행 메커니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치 전략 분석을 위한 SER-M(Subject-Environment-Resource-Mechanism) 모델을 중심으로, 감정 정치와 전략적 메시지 구성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주로 메시지의 내용 분석, 수용자의 반응, 혹은 미디어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전략이 작동하는 구조적 맥락, 즉 정치적 주체가 처한 환경과 그에 따른 감정적·인지적 반응, 그리고 이를 전략적으로 조직화하는 실행 메커니즘 간의 유기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SER-M 모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치 전략을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닌 주체(S)가 환경(E) 속에서 특정 자원(R)을 동원하여 메커니즘(M)을 통해 전략을 실행하는 구조적 실행 흐름으로 파악한다. 이 모델은 특히 감정 어휘, 정체성 호소, 위기 담론 등 전략 요소들이 어떻게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특정 사례 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정치 전략 간의 연결을 분석하고 감정 어휘의 사용이 전략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전략을 채택하였다. 첫째, 사례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정서 구조를 분석하여 전략이 선택되고 실행되는 맥락을 구체화한다. 둘째, 감정 어휘 분석 도구(LIWC 등)를 활용하여 정치적 메시지 내 감정 자원의 구성과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적 의미를 해석한다. 셋째, 전략 효과의 해석에 있어 감정 정치 이론, 정치적 효능감 이론 등 기존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단순한 정치 시평이 아닌 분석 논문으로서의 학술적 기여를 도모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SER-M 요소 간에는 어떤 구조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어떤 실행 흐름을 통해 전략으로 구체화되는가?

둘째, 특정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치 전략은 어떻게 연결되며 전략 선택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

셋째, 감정 어휘는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되며 그 효과는 어떻게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

넷째, 이러한 전략은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회복과 정치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SER-M 모델을 중심으로 정치 전략의 구조적 실행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감정 정치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치 전략 분석의 방법론적 확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대 정치의 감정화(emotionalization)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감정 정치, 정치적 효능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SER-M 모델의 구성 요소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이론이 본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 질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현대 정치 환경은 단순한 정책 경쟁의 장을 넘어 감정과 정체성, 그리고 인식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더욱 감정화(emotionalized)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 전략은 점점 더 감정적 자극과 정체성 호소에 기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들을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틀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감정 정치 이론, 정치적 효능감 이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SER-M 모델의 이론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1. 감정 정치 이론: 감정은 전략이다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는 정치적 판단과 행동이 이성적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감정적 반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Marcus, Neuman & MacKuen (2000)의 'Affective Intelligence Theory'는 유권자가 불안, 분노, 희망 등의 감정을 경험할 때 기존의 정치적 습관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정치적 학습과 선택을 유도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이다. 특히 불안은 기존 신념을 흔들고 분노는 책임 추궁을 유도하며 희망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수용하게 만든다.

이러한 감정은 정치 전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Laclau (2005)((해당 참고문헌 추가))는 포퓰리즘 정치에서 감정이 '우리 대 그들'의 구도를 형성하고 공통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감정은 이념이나 정책보다 더 빠르게 유권자의 주의를 끌고 더 강하게 정치적 동일시를 유도한다. 따라서 감정 어휘의 반복적 사용, 위기 담론의 구성, 정체성 호소는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전략적 자원(resource)으로 기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감정 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감정 어휘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성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회복과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다.

2. 정치적 효능감 이론: 감정과 참여의 연결고리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유권자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구분된다(Craig, Niemi, & Silver, 1990). 내적 효능감은 정치적 이해력과 참여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이며, 외적 효능감은 정치 체도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두 가지는 정치 참여의 핵심 동기이며 감정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감정적 메시지는 유권자의 효능감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잊혔다”는 메시지는 외적 효능감의 상실을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내적 효능감을 자극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유권자에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유도하며, 정치 참여의 동기를 강화한다. 본 논문은 감정 어휘가 정치적 효능감의 회복을 매개로 전략 효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SER-M 모델을 통해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3.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구조화된 메시지

정치 전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특정한 감정과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구성의 과정이다. Entman, R. M. (2004)은 프레이밍 이론을 통해 메시지가 어떤 문제를 강조하고 원인을 규정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수용자의 인식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특히 감정 어휘는 메시지의 프레이밍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고, 정치적 판단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메시지의 반복성과 일관성을 강조한다. 감정 어휘의 반복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감정적 동일시를 강화하고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메시지의 구조는 단순한 문장 배열이 아니라 감정적 흐름과 인지적 전환을 유도하는 설계된 구조이며 이는 전략의 실행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메시지 구성 방식이 어떻게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되는지를 SER-M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4. SER-M 모델: 전략의 구조적 실행 흐름

SER-M 모델은 정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Subject (S): 정치적 주체, 즉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행위자
- Environment (E): 주체가 처한 구조적·사회문화적 환경
- Resource (R): 전략 실행에 동원되는 자원, 특히 감정 어휘, 정체성 담론 등
- Mechanism (M): 자원을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

이 모델은 각 요소 간의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실행 흐름(executional flow)을 중심으로 전략의 형성과 효과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주체(S)는 환경적 위기(E)에 직면하여 특정 감정 자원(R)을 동원하고 이를 메커니즘(M)을 통해 전략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 어휘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정치적 효능감 회복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유도한다.

SER-M 모델은 따라서 감정 정치, 정치적 효능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로 기능하며, 본 논문은 이 모델을 통해 정치 전략의 구조적 실행 흐름을 분석하였다.

5. 정치 담론에서의 자기 언급(self-mention)과 화자 신뢰성(ethos)의 전략적 기능

정치적 메시지의 설득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화자가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Albalat-Mascarell & Carrió-Pastor(2019)는 2016년 미국 대선 토론을 분석하며, 정치인들이 자기 언급을 통해 화자의 신뢰성(ethos)을 구축하고 청중과의 감정적 연결(pathos)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트럼프와 펜스는 1인칭 대명사(I, me, my)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현실적 해결자’로 포지셔닝하며 기존 정치 엘리트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SER-M 모델의 ‘Resource’ 요소와 연결된다. 감정 어휘는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인지적 틀을 재구성하고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회복시키는 자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감정 정치의 실행 흐름은 자기 언급을 통해 강화되며 이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III. 사례 지역 맥락 분석

1. 주체(Subject)의 전략적 구성: 트럼프 캠프의 감정 정치적 포지셔닝

트럼프 캠프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단순한 정책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위기를 감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트럼프는 자신을 ‘기존 정치 엘리트에 맞서는 외부자’로 포지셔닝하며 Rust Belt 유권자들의 분노, 배신감, 상실감에 감정적으로 공명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SER-M 모델의 ‘S(Subject)’ 요소로서 정치적 주체가 환경적 조건을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해석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출발점이 된다. 트럼프는 Rust Belt의 구조적 위기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체성의 위기’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는 감정 정치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였다.

2. Rust Belt의 구조적 위기: 환경(Environment)의 심화된 불균형

Rust Belt는 미국 중서부 및 북동부에 걸쳐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자동화(automation),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 등의 구조적 변화는 이 지역의 경제 기반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제조업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사회경제적 붕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 경기 침체가 아닌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구조적 위기로 평가된다. 예컨대 Pennsylvania주의 Luzerne County는 1980년대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Michigan주의 Macomb County는 중위소득이 2만 달러 이상 하락하였다. Ohio주의 Trumbull County는 제조업 기반의 붕괴와 함께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심리적 안정성, 사회적 연대감의 전반적 붕괴를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SER-M 모델의 'E(Environment)' 요소로서 정치적 전략이 설계되고 실행되는 구조적 맥락을 형성한다. 즉, Rust Belt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 정치적 감정이 전략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구조적 감정 자산(emotional infrastructure)을 내포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3. 감정 어휘의 전략적 자원화(Resource): “우리는 잊혔다”의 반복

트럼프의 메시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는 잊혔다(We are forgotten)”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Rust Belt 유권자들이 경험한 구조적 소외를 감정적으로 명명하고 이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감정 어휘는 이처럼 환경적 위기를 감정적으로 번역하고 정치적 동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자원이다.

Liu & Lei(2018)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연설문과 트윗에서 사용된 감정 어휘의 28.4%는 부정적 감정(분노, 배신감 등)에 해당하며 이는 클린턴의 18.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감정 어휘는 단순히 유권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동일시(emotional identification)를 유도하고 정치적 효능감 회복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4. 메커니즘(Mechanism)의 작동: 감정적 동일시에서 정치적 선택으로

감정 어휘는 전략적 자원으로 특정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되어야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는 감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SNS 및 지역 유세를 통해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자신을 ‘우리’로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이는 감정적 동일시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투표 행동으로 연결되는 실행 흐름을 구성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SER-M 모델의 ‘M(Mechanism)’ 요소로서 전략이 실행되는 구체적 경로를 설명한다. Rust Belt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메시지를 통해 “정치가 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였고, 이는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 이는 감정 정치가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구조적 절망 속에서 정치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전략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사례 지역과 전략 간의 인과적 연결: 실행 흐름의 통합적 해석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Rust Belt 지역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 지역’이 아니라 감정 정치가 전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갖춘 공간이다. 트럼프 캠프는 이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감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전략적 자원으로 조직화하여 감정적 동일시 → 정치적 효능감 회복 → 투표 행동이라는 실행 흐름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실행 흐름은 SER-M 모델의 네 요소가 단절된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략이 형성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행 흐름을 통해 감정 정치의 구조적 작동 원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는 정치 전략 분석의 방법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IV. SER-M 실행 흐름 분석

1. 실행 흐름 개념의 이론적 정당화

정치 전략은 고정된 메시지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주체가 자원을 인식하고 조직하며 이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ER-M 모델은 정치 전략의 형성과 실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단순한 요소 나열이 아닌 구조적 실행 흐름(executional flow)을 중심으로 한 분석 틀로 기능한다.

기존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메시지의 내용, 수용자의 반응, 미디어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접근은 전략이 형성되는 구조적 맥락과 실행 경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SER-M 모델은 정치적 주체(S)가 처한 환경(E)을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 자원(R)으로 조직한 뒤, 특정 메커니즘(M)을 통해 실행하는 일련의 흐름을 구조화함으로써 전략의 형성과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실행 흐름은 특히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와 같은 비물질적 자원이 중심이 되는 전략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동한다. 감정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전략적 자원으로서 조직되고 반복되며, 특정한 메커니즘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회복과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감정 어휘의 반복, 정체성 호소, 위기 담론의 구성 등은 실행 흐름의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실행 흐름의 단계별 구조

SER-M 모델의 실행 흐름은 네 가지 요소가 선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전략의 형성과 실행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Rust Belt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주체(Subject): 전략적 해석과 감정적 포지셔닝

정치적 주체는 환경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포지셔닝함으로써 전략의 방향을 설정한다. 트럼프 캠프는 Rust Belt의 구조적 위기를 ‘경제적 실패’가 아닌 ‘정치 엘리트의 배신’으로 해석하였고, 자신을 ‘기득권에 맞서는 외부자’로 포지셔닝하였다. 이러한 주체 구성은 감정적 동일시를 유도하고 유권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Environment): 구조적 위기의 감정적 토양

Rust Belt 지역은 탈산업화, 실업률 상승, 중위소득 하락, 자살률 증가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표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기이다. 이러한 환경은 전략의 출발점이자 감정적 자원이 생성될 수 있는 감정적 토양(emotional soil)로 기능한다. 즉, 환경은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제공하며, 감정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자원(Resource): 감정 어휘의 전략적 조직화

감정 어휘는 전략 실행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잊혔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유권자의 감정적 경험을 명명하고 조직화하는 전략적 자원이다. 이 자원은 반복적 노출과 SNS 확산을 통해 감정적 에너지를 축적하고,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정 어휘는 특히 부정적 감정(분노, 배신감, 상실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정치적 선택에 대한 정당화를 동시에 제공한다.

메커니즘(Mechanism): 감정의 실행 경로

감정 자원은 특정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되어야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는 유세, 미디어, SNS를 통해 감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켰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을 ‘우리’로 동일시하게 되었다. 이 감정적 동일시는 정치적 효능감 회복으로 이어졌으며 궁극적으로 투표 행동이라는 전략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메커니즘은 감정 자원이 전략으로 전환되는 실행 경로이며 반복, 확산, 동일시, 효능감 회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감정 어휘의 반복과 확산을 통해 유권자와의 감정적 동일시를 유도하고 이는 정치적 효능감 회복과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 흐름을 구성한다. 특히 인지적 재구조화와 감정의 내면화는 전략 효과를 강화하는 핵심 경로로 작동하며, 이는 SER-M 모델의 M 요소가 전략의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

3. 실행 흐름의 순환성과 강화 메커니즘

SER-M 실행 흐름은 선형적이기보다는 순환적(cyclical) 구조를 가진다. 전략이 실행되어 정치적 효과를 창출하면 이는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주체의 전략적 해석과 자원 구성 방식에 변화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는 Rust Belt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의 실현을 경험하게 하였고 이는 이후의 전략 설계에 있어 더욱 강력한 감정 자원의 동원과 메커니즘의 정교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전략이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응적인 실행 흐름임을 시사한다. 감정 자원은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강화되며 메커니즘은 실행될수록 정교화된다. 따라서 SER-M 모델은 전략의 진화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동태적 모델로 기능한다.

4. 실행 흐름의 일반화 가능성과 비교 분석의 확장성

SER-M 실행 흐름은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치적 맥락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 가능성을 지닌다. 예컨대 한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나 청년 세대의 정치적 소외감 역시 환경(E)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 주체의 해석(S), 감정 자원의 조직화(R), 실행 메커니즘(M)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SER-M 모델은 비교 정치적 분석에도 유용하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서로 다른 주체가 어떻게 자원을 구성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전략을 실행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전략의 효과성과 한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정치 전략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감정 정치의 구조적 작동 원리를 보다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V. 감정 어휘 분석

1. 감정 어휘의 이론적 위상: 언어적 수사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감정 어휘(emotional lexicon)는 정치 담론에서 단순한 수사적 장치를 넘어,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며, 감정 어휘는 이러한 감정을 언어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인식 구조를 재편하고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우리는 잊혔다”는 표현은 피해의식의 단순한 표출이 아니라, 구조적 소외를 감정적으로 명명하고 이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략적 언어이다. 이 표현은 유권자에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감정적 동일시(emotional identification)를 유도하며,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화(structuring of affect)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감정 어휘는 SER-M 모델의 R(Resource) 요소로서, 전략 실행의 기반을 형성한다. 주체(S)가 환경(E)을 인식하고, 감정 어휘라는 자원(R)을 조직하여 메커니즘(M)을 통해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감정 어휘는 전략의 핵심 매개로 작동한다. 따라서 감정 어휘는 정치 전략의 수단이 아니라, 전략 그 자체의 구성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2. 감정 어휘의 유형론: 감정의 분류와 전략적 기능

감정 어휘는 그 감정의 방향성과 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은 전략적 효과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정치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동원 효과를 가지는 감정은 분노, 배신감, 상실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다. 이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고 새로운 정치적 선택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감정 어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부정적 감정 어휘: “배신”, “무시당했다”, “기득권”, “부패한 정치인” 등은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며 정치적 전환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상실 및 소외 어휘: “잊혔다”, “사라졌다”, “무너졌다” 등은 유권자의 정체성 상실과 소외감을 명명하며 감정적 동일시를 유도한다. 회복 및 희망 어휘: “다시 위대하게”, “되찾자”, “일으키자” 등은 희망과 회복의 감정을 자극하며 정치적 효능감 회복을 매개로 행동을 유도한다.

이러한 감정 어휘는 전략적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서 감정의 방향성과 강도를 조절하며 유권자의 감정적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조직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 어휘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강화하고 회복 어휘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함으로써 감정의 이중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 구조는 정치적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정적 설득과 행동 유도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설계임을 보여준다.

3. 감정 어휘의 반복: 정체성의 전략적 구성

감정 어휘는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강화된다. 반복은 단순한 노출 빈도의 증가가 아니라, 감정적 동일시의 심화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유세, SNS,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일한 감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자신을 ‘우리’로 동일시하고 기존 정치 질서를 ‘그들’로 규정하게 만들었다. 이때 자기 언급은 반복되는 감정 어휘와 결합되어 화자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메시지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나는 잊혔다”는 표현은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화자가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포지셔닝하며 정치적 효능감 회복을 유도하는 전략적 언어로 작동한다. 이러한 감정적 동일시는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의 구성 과정이다. 감정 어휘는 유권자의 경험을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며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는 감정 어휘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 형성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반복은 감정의 내면화를 유도한다. 반복적으로 노출된 감정 어휘는 유권자의 인지적 틀(cognitive frame)을 재구성하며, 이는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감정 어휘는 전략적 반복을 통해 감정의 구조화와 정체성의 내면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4. 감정 어휘 분석의 방법론: 정량과 정성의 통합적 접근

감정 어휘 분석은 정량적·정성적 방법론을 병행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정량적 분석은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NRC Emotion Lexicon, KoNLPy 등 감정 어휘 사전을 활용하여 특정 감정 범주의 어휘 빈도를 측정하고, 담론 내 감정 분포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iu & Lei(2018)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연설문과 트윗에서 부정적 감정 어휘(분노, 배신감 등)의 비율은 28.4%로, 클린턴의 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트럼프 캠프가 감정 어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유권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정성적 분석은 감정 어휘의 맥락적 사용 방식, 수사적 전략, 정체성 구성 방식 등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잊혔다”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어떤 감정적 반응을 유도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감정 어휘의 전략적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iu & Lei(2018)의 정량 분석 결과를 인용함과 동시에 트럼프의 대표적 연설문과 트윗을 대상으로 감정 어휘의 반복 구조, 정체성 구성 방식, 감정적 전환 흐름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감정 어휘가 전략적 자원으로서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감정 어휘 분석은 단순한 단어 빈도 분석을 넘어 감정의 구조화된 동원 방식, 감정의 정치적 기능, 감정과 정체성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감정 어휘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임을 전제하는 분석적 접근이다.

5. 감정 어휘와 정치적 효능감의 연결: 감정에서 주체성으로

감정 어휘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치적 효능감은 유권자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며 이는 내적 효능감(자신의 정치적 이해력과 참여 능력에 대한 인식)과 외적 효능감(정치 체도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성된다(Craig, Niemi, & Silver (1990)). “우리는 잊혔다”는 표현은 외적 효능감의 상실을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는 표현은 내적 효능감의 회복을 유도한다. 이러한 감정 어휘는 유권자에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투표 참여와 같은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기 언급은 감정 어휘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자가 직접 “나는 믿는다”, “나는 싸우겠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청중은 화자의 진정성과 결단력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는 감정 어휘와 자기 언급이 결합될 때 정치적 효능감 회복의 메커니즘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적 효능감은 감정 어휘를 통해 구성되며 이는 전략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감정 어휘는 유권자의 감정적 경험을 정치적 의미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행동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이는 감정 어휘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으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VI. 전략 효과 분석

1. 전략 효과의 정의 및 구조적 조건

전략 효과란 특정 정치 메시지가 유권자의 인지적 구조,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 수용 여부를 넘어 메시지가 유권자의 기존 인식 틀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감정적 동일시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전략 효과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메시지의 반복성은 감정적 내면화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감정 어휘의 강도와 방향성은 유권자의 정서적 반응을 결정짓는 요인이며, 특히 부정적 감정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수용자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은 메시지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매개 변수로,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트럼프 캠프의 “우리는 잊혔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피해의식 표현이 아니라 Rust Belt 유권자들의 구조적 소외감을 감정적으로 명명하고 이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이 메시지는 유권자의 내적 효능감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유도하였다.

2. 감정 어휘의 반복과 인지적 재구조화

감정 어휘의 반복은 전략 효과를 강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반복은 단순한 노출 빈도의 증가가 아니라 유권자의 인지적 틀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Marcus, Neuman & MacKuen (2000)의 Affective Intelligence Theory에 따르면 유권자가 불안이나 분노를 경험할 때 기존의 정치 습관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이는 감정이 인지적 전환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Rust Belt 유권자들에게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자신을 ‘우리 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인지적 재구조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나는 싸우겠다”, “나는 믿는다”와 같은 자기 언급은 감정 어휘의 반복성과 결합되어 화자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메시지의 진정성을 부여한다. 이는 청중에게 화자의 결단력과 신뢰성을 전달하며 전략 효과의 인지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복은 감정의 내면화를 유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 기준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즉, 감정 어휘는 반복을 통해 인지적 구조를 재편하고 정치적 선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3. 전략 효과의 실증적 지표

전략 효과는 이론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증적 지표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장 명확한 지표는 행동 변화, 특히 투표 행동의 변화이다. 트럼프가 Rust Belt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했던 카운티에서 승리한 것은 전략 효과의 실증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ennsylvania주의 Luzerne County에서는 트럼프가 19.3%p의 득표율 상승을 기록하였고 Michigan주의 Macomb County에서는 11.6%p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감정 자극이 아닌 전략적으로 구성된 메시지가 유권자의 인식과 행동에 구조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득표율 변화만으로 전략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증적 검증을 위해서는 과거 선거와의 비교, 인구통계적 변화, 투표율 변화, 정당 충성도 이동, 여론조사 추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Luzerne County의 경우 2012년 오바마가 51.6%를 득표했으나 2016년 트럼프가 58.0%를 득표하며 약 19%p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의 메시지 효과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변화, 민주당 후보의 약화, 제3정당 득표율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략 효과의 실증적 분석은 단일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과거와의 차이(득표율, 투표율, 정당 충성도, 인구 이동 등)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감정 어휘의 반복·확산과 실제 행동 변화(투표, 정치 참여 등) 간의 인과관계를 정량·정성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 언급을 통한 화자의 ethos 구축 역시 메시지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그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실제 행동 데이터, 미디어 노출 빈도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SER-M 모델을 통한 전략 효과의 실행 흐름

SER-M 모델은 전략 효과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닌 구조적 실행 흐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체(S)는 환경(E)을 인식하고, 자원(R)을 조직하여, 메커니즘(M)을 통해 전략을 실행한다. 이 흐름은 선형적이기보다는 상호 작용적이며 순환적이다.

감정 어휘는 이 흐름의 핵심 자원으로 작동하며 반복과 확산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회복과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 자기 언급은 자원의 구성과 메커니즘의 작동을 강화하는 요소로 기능하며 전략의 실행 흐름을 더욱 설득력 있게 구성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Rust Belt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감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우리는 잊었다”는 감정 어휘로 명명함으로써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였다. 이후 유세와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유권자와의 감정적 동일시를 유도하였다. 이는 정치적 효능감 회복과 투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행 흐름을 구성하였다.

5. 전략 효과의 한계와 조건

전략 효과는 모든 맥락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감정 어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기존 인지를,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메시지가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는 무관심이나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감정 어휘의 효과는 수용자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내적 효능감이 낮은 유권자는 메시지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외적 효능감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메시지가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략 효과는 메시지 자체의 설계뿐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구조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SER-M 모델은 이러한 조건성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전략 효과의 보편성보다는 맥락적 민감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VII. 논의 및 함의

1. 감정 정치의 전략적 구조화: 감정은 어떻게 전략이 되는가

본 논문은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가 단순한 선동적 수사나 일시적 동원 수단이 아니라 구조화된 전략 실행 흐름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창출하는 체계적 메커니즘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감정은 정치적 주체가 환경을 해석하고 자원을 조직하며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략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감정 어휘는 유권자의 정서적 경험을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인지적 재구조화, 정체성 구성, 정치적 효능감 회복,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 흐름을 형성한다.

이러한 분석은 감정이 정치적 판단의 장애물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존 감정 정치 이론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며 감정의 정치적 작동 원리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SER-M 모델의 유용성을 입증한다. 감정은 전략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감정 어휘는 그 구조적 매개로 기능한다.

더 나아가 감정은 정치적 주체가 자신의 정당성을 구축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정치적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적 설계의 중심축으로 작동한다. 이는 감정 정치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정치 전략의 핵심적 구조로 기능함을 의미하며 감정 어휘의 반복과 자기 언급은 전략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2. SER-M 모델의 분석적 기여: 실행 흐름 중심의 전략 분석

SER-M 모델은 정치 전략을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나 수용자 반응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전략이 형성되고 실행되는 구조적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실행 흐름 중심의 분석 틀을 제공한다. 특히 감정 어휘와 자기 언급은 SER-M 모델의 Resource 요소에서 상호작용하며 화자의 존재감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자기 언급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전략의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감정 어휘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이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적 기여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체(S)는 환경(E)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자원(R)을 조직하고 메커니즘(M)을 통해 전략을 실행하는 실행

흐름을 구성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감정 어휘는 이 실행 흐름의 핵심 자원으로서 감정적 동일시와 정치적 효능감 회복을 매개로 전략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예를 들어 LIWC 기반 감정 어휘 분석 결과 트럼프의 연설문과 트윗에서 부정적 감정 어휘(분노, 배신감 등)의 비율이 28.4%로 클린턴의 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캠프가 감정 어휘를 전략적으로 반복·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감정적 반응과 집단 정체성, 정치적 효능감 회복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 언급 빈도 역시 트럼프와 펜스가 클린턴·카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화자의 존재감과 메시지의 진정성, 설득력 강화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략 효과는 단순한 지지율 상승이 아니라 인식 구조의 재편, 정체성의 구성, 효능감의 회복, 행동의 변화라는 다층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조화된 결과란 감정 어휘의 반복 → 집단 정체성 강화 → 정치적 효능감 회복 → 행동 변화(투표 등)로 이어지는 실행 흐름이 선형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각 단계가 상호작용하며 순환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Rust Belt 지역에서 트럼프의 감정 어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유권자들은 자신을 ‘잊힌 사람들(the forgotten)’로 동일시하게 되었고, 이는 정치적 효능감의 회복과 실제 투표 행동 변화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실행 흐름은 전략 효과가 누적적·순환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넷째, 전략 효과는 선형적 결과가 아니라 순환적이고 누적적인 실행 흐름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전략의 지속성과 확산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 전략 연구가 보다 구조적이고 실행 중심적인 분석 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SER-M 모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감정 정치와 같은 비물질적 자원이 중심이 되는 전략 분석에 있어 SER-M 모델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수용자 반응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구조적 작동 원리를 해명하는 데 유용하다

3. 전략 효과의 조건성과 맥락성: 보편성과 한계

본 논문은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 Rust Belt라는 특정 지역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다른 지역이나 문화적 맥락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감정 어휘의 전략적 효과는 환경적 조건, 문화적 코드, 미디어 구조, 정치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한 감정 어휘가 한국의 수도권 청년층에게는 무관심이나 냉소로 반응될 수 있으며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맥락에서는 배타적 정체성 강화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감정 어휘의 효과가 언어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구조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SER-M 모델은 전략 효과의 보편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전략이 작동하는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고 그 조건 속에서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적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해 Rust Belt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탈산업화, 실업률, 소득 하락, 인구 이동 등)와 정치적 정서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감정 어휘의 반복 빈도, 자기 언급 사용, 미디어 및 SNS 노출 빈도, 실제 투표율 변화 등 다양한 정량·정성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Luzerne County와 Macomb County의 과거 선거 결과와 비교하여 득표율 변화의 규모와 방향성을 분석하고 감정 어휘가 반복적으로 노출된 시기와 투표 행동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감정 어휘와 자기 언급이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회복 및 집단 정체성 강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전략 효과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구조적·맥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 전략 설계에 있어 문화적·사회적 조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4. 감정 정치의 윤리적 함의: 전략의 효과성과 책임성

감정 어휘를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치 전략은 강력한 동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감정은 유권자의 인식과 행동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지만, 그만큼 정치적 조작이나 정서적 과잉 동원의 가능성도 높다. 특히 자기 언급은 화자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메시지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정치적 담론을 개인화하거나 청중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동체 내 정서적 균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화자는 자기 언급을 통해 신뢰성과 결단력을 구축할 수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공동체의 정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 구조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문화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과도한 자극은 혐오, 배제,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심층적 기반인 상호 존중과 공론장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분노, 공포, 배신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정치적 판단이 이성적 숙고보다는 정서적 반응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전략의 단기적 효과성과 장기적 사회적 비용 간의 균형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 정치의 전략적 활용은 단순한 효과성 평가를 넘어 윤리성과 책임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 전략 실천자는 감정 어휘의 반복과 확산이 단순한 수사적 효과를 넘어 유권자의 인식 구조, 정체성 형성, 행동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감정 정치가 단순한 전략적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치 전략은 단지 선거 승리를 위한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서적 구조를 형성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구성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감정 어휘는 유권자의 감정적 경험을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집단 정체성과 정치적 효능감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따라서 감정 어휘의 전략적 사용은 그 효과뿐 아니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정치적 문화와 정서적 질서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정치 전략 설계자는 감정의 동원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 정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전략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향후 연구 방향: 비교 연구와 모델 확장

본 논문은 SER-M 모델을 트럼프 캠프의 전략 분석에 적용하였으나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정치적 맥락(예: 한국의 지역 불균형,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SER-M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감정 어휘 외에도 이미지, 상징, 제스처 등 비언어적 자원의 전략적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자원(R)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감정 정치가 언어적 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시각적·신체적 표현을 포함한 다중 양식(multimodal) 전략임을 전제하는 분석이다.

셋째, 메커니즘(M)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정량적 모델링(예: 네트워크 분석, 감정 전염 모델, 확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전략 실행의 동역학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전략 효과의 지속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감정 정치의 장기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은 SER-M 모델을 정치 전략 분석의 보편적 분석 틀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감정 정치의 구조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산이 될 것이다.

VIII. 결론

본 논문은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의 전략적 작동 원리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SER-M 모델을 분석 틀로 채택하고, 트럼프 캠프의 2016년 대선 전략을 사례로 삼아 감정 어휘의 반복, 정체성 구성, 정치적 효능감 회복,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 흐름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메시지의 내용이나 수용자의 반응에 집중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략이 작동하는 구조적 맥락과 실행 흐름을 중심으로 감정 정치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감정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의 장애물이나 비합리적 요소로 간주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략적 자원으로 조직되고 실행되는 정치적 실천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을 본 논문은 구조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감정 어휘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유권자의 인식 구조를 재편하고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며,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장치로 작동한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 어휘는 유권자의 정서적 경험을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고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인지적 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를 유도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둘째, 감정 어휘는 집단 정체성 구성의 핵심 장치로 작동하며, 트럼프 캠프는 감정 어휘를 통해 ‘우리 대 그들’의 구도를 형성하고 유권자들이 자신을 ‘잊힌 사람들(the forgotten)’로 동일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감정 어휘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회복을 매개로 유권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외적 효능감의 상실을 명명하고, 내적 효능감의 회복을 자극함으로써 유권자가 정치적 주체로서 자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심리적·정치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이러한 실행 흐름은 SER-M 모델의 네 요소(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략이 형성되고 실행되는 구조적 경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전략 효과는 단순한 지지율 상승이 아니라 인식 구조의 재편, 정체성의 구성, 효능감의 회복, 행동의 변화라는 다층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SER-M 모델은 감정 정치의 구조적 분석에 적합한 틀임을 입증하였다.

이론적·방법론적으로 본 논문은 감정 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수사적 분석이나 수용자 반응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감정 어휘의 전략적 구성과 실행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SER-M 모델은 정치 전략을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닌 실행 흐름으로 구성된 구조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감정 정치의 작동 원리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 기능한다. 또한 본 논문은 정량적 분석(LIWC 기반 감정 어휘 빈도 분석)과 정성적 분석(정체성 구성, 감정적 동일시, 효능감 회복 등)을 병행함으로써 감정 어휘의 전략적 효과를 다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정치 전략 분석이 단일 방법론에 의존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감정 어휘의 전략적 활용은 강력한 동원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위험도 내포한다. 감정의 과도한 자극은 혐오, 배제,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심층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 정치의 전략적 활용은 효과성뿐 아니라 윤리성과 책임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정치 전략 실천자는 감정 어휘의 반복과 확산이 유권자의 인식과 정체성, 행동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트럼프 캠프의 전략을 중심으로 감정 정치의 구조적 작동 원리를 분석하였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SER-M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감정 정치의 전략적 효과는 문화적 코드, 미디어 구조, 제도적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교 연구와 방법론적 확장, 그리고 윤리적 평가 기준의 정립이 향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lbalat-Mascarell, A., & Carrió-Pastor, M. L. (2019). Self-representation in political campaign talk: A functional metadiscourse approach to self-mentions in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Journal of Pragmatics*, 147, 86–99. <https://doi.org/10.1016/j.pragma.2019.05.011>
- Charcon, D. Y., & Monteiro, L. H. A. (2020). A multi-agent system to predict the outcome of a two-round election. *Applied Mathematics and Computation*, 386, 125481. <https://doi.org/10.1016/j.amc.2020.125481>
- Craig, S. C., Niemi, R. G., & Silver, G. E.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 289–314. <https://doi.org/10.1007/BF00992337>
- Entman, R. M. (2004). *Projections of Power: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lippou, I., Gozluklu, A. E., Nguyen, M. T., & Viswanath-Natraj, G. (2025). Signal in the noise: Trump tweets and the currency market.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56, 103343. <https://doi.org/10.1016/j.jimonfin.2025.103343>
- Laclau, E. (2005).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 Liu, D., & Lei, L. (2018). The appeal to political sentiment: An analysis of Donald Trump's and Hillary Clinton's speech themes and discourse strategies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Discourse, Context & Media*, 25, 143–152. <https://doi.org/10.1016/j.dcm.2018.05.001>
- Marcus, G. E., Neuman, W. R., & MacKuen, M. (2000). *Affective Intelligence and Political Judg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nnat, S. M., & Brown, D. L. (2017). More than a rural revolt: Landscapes of despair and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55, 227–236. <https://doi.org/10.1016/j.jrurstud.2017.08.010>
- Montenegro de Wit, M., Roman-Alcalá, A., Liebman, A., & Chrisman, S. (2019). Agrarian origins of authoritarian populis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ural Studies*, 82, 518–530. <https://doi.org/10.1016/j.jrurstud.2019.12.003>
- Wood, T. J., & Weisberg, H. F. (2019). Introductio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understated stability. *Electoral Studies*, 61, 102027. <https://doi.org/10.1016/j.electstud.2019.03.003>

Emotion Politics and Discursive Strategy: An SER-M Model Analysis of Donald Trump's 2016 Election Victory

This study applies the SER-M (Subject-Environment-Resource-Mechanism) model to structurally analyze the strategic operation of emotional politics. Using Donald Trump's 2016 U.S. presidential campaign as a case study, it examines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e executional flow that links the repetition of emotional vocabulary, identity formation, restoration of political efficacy, and behavioral change.

Findings reveal that emotional vocabulary functions not merely as rhetorical expression but as a strategic resource that reconstructs voter perception and identity. It serves as a core mechanism that fosters political awareness and mobilization. The SER-M model integrates theories of emotional politics, political efficacy, and strategic communication, offering a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political strategies are formed and executed within specific structural context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 deeper structural understanding of emotional politics by demonstrating that emotional language is not incidental but central to the formation of political subjectivity and collective identity. It also highlights the ethical implications of emotional strategy, emphasizing the need for responsible use of affective language in political discourse. The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future directions for comparative research and model expansion across diverse political and cultural settings.

Keywords: emotional politics, emotional vocabulary, political efficacy, strategic communication, SER-M model, Donald Trump,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executional flow, identity formation, strategic effect